

## 담임목사 리더십

### 제4강. 영적 지도력과 비전

#### 1. 미래의 전망과 지도력

21세기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또한 많은 미래학자들의 연구의 과제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가속화 현상은 세계를 지구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나날이 가속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우주개척, 유전공학, 컴퓨터등 그 밖의 많은 기술들이 인류의 새로운 개척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생활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세대에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든가, 아니면 세상에 의하여 변화되어 세속화되거나 퇴색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파악하여 창조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가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향을 주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예측불허이며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도자는 미래를 보는 연습을 하며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 2. 영적 지도자와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영적지도자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오늘날 거대한 변화 앞에서 많은 지도자의 문제는 영적 비전을 상실하고,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져 가는 것이다. 지도자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창세기에 보면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고,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날 기술주의와 정보주의에 포로가 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지 손길을 보기 위하여서는 참된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영적지도자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Paradigm Shift)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패러다임이란 실재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모델이나 패턴을 말한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영적지도자로 서기 위하여 필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지도자에게 필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프로그램 감독(Program Director)에서 영적 감독(Spiritual Director)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원칙과 근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감독이란 다윈의 사회경제학적 의식 즉 시장의 논리, 경쟁, 적자생

존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God-oriented)의 순종에서 이탈하여 경력 중심(Career-oriented)의 성공의 추구를 의미한다.

영적 감독으로서의 목회자(Spiritual-director Pastor)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의식 즉 예배, 종의 삶, 희생으로 형성된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목회를 자아 중독에서 은혜와 자유로 변환시킨다. 이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자기 포기과 용서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영적인 감독으로서의 목회자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목하도록 하는 유혹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지도력을 위한 참된 패러다임의 변환과 비전이다.

### 3. 영적지도자와 비전의 본질과 수립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생각에 달려있다.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힘은 앞으로의 일생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미래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미래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대하여 자꾸 바라보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실상이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긴 안목을 가지고 비전을 설정하고 일관성있게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비전의 본질과 수립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 (1) 비전의 본질

비전이란 흔히 꿈, 희망, 이상, 전망 등의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비전(Vision)이란 '바라보다. 보다. 응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전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힘이요,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다. 비전은 참다운 이상과 꿈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참다운 소망, 즉 비전을 가진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그가 일생동안 추구하여야 할 참다운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 ① 새로운 변화(Transformation)를 추구함

비전의 본질적인 첫번째 요소는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비전은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동력이요, 의도적으로 창출된 변화이다. 비전을 가진 자들은 결코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과거의 질서를 개혁하고 과거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는 사람들이다. 개혁 능력을 상실한 개인과 단체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자들은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이다. 현실에 만족하고 타성에 젖는 자들은 비전을 가질 수 없다. 비전을 가진 자는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며 주도해 가는 것이다.

②확고한 주체성(Identification)을 견지함

비전의 중요한 본질은 자신의 것을 창안해 내고 개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독특한 적성과 특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집단의 경우 고유한 성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뚜렷한 정체의식과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화해 가는 방향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지만 개인의 욕구와 사회에 부합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세계화의 현상에 적응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것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③원대한 목표(Excellency)를 추구함

비전은 도전의식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탁월하고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위대한 비전을 가질 때 그의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은 원대한 목표에 매력을 느끼고 행동에의 동기유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전을 세울 때에는 무리할 정도로 크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불가능한 것을 꿈꾸었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④장기적 전략(Long-term)을 요구함

비전은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를 수 있거나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 비전은 5년, 10년, 또는 그보다 더 멀리 내어다 보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이다. 따라서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장기적인 안목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고 세계의 큰 흐름을 보아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전의 수립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개인과 집단의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 수립의 단계는 삼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화의 단계이다. 둘째는 믿음의 언어인 말하는 언어화의 단계이다. 셋째는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화의 단계이다.

①시각화(Visualization)의 단계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위대한 지도자요, 비전의 사람이었다(히11:24-27).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창13:14, 15).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 이와같이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네가지를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첫째,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둘째, 자신의 내적 욕구를 보아야 한다. 셋째, 자신의 자원을 보아야 한다. 넷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아야 한다.

②언어화(Verbalization)의 단계

비전의 다음 단계는 언어화의 단계이다. 보는 것은 믿음의 기회이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이다. 언어화의 단계에서 우리와 시각을 사로잡은 그것에 헌신할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앙의 언어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니”(롬10:9). 내적 신념을 외적으로 고백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네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둘째, 꿈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셋째, 훌륭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꿈을 전하여야 한다. 넷째, 악조건에서도 계속 추진케하는 확신이다.

③행동화(Actualization)의 단계

비전수립의 마지막 단계는 믿음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비전은 허망한 꿈이나 허다한 말 이상의 것이다.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마침내 실행의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소수의 창조적인 엘리트 집단의 일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회와 실행의 원리를 놓쳐버린다. 행동화의 단계를 건너려면 다음의 네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과감히 실패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꿈을 꾸는 자리에서 헌신자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넷째,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 4. 목회비전과 목표설정

비전은 중요한 것이나 그 비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동의하는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자이다. 교회의 일도 사회적인 일과 같이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세 단계의 순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

목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에디 김스 박사는 목표는 믿음의 선언이요, 우선권(priority)을 결정하며, 일의 성취를 위한 과녁이요, 헌신을 다루어 보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후에는 목표를 정하여야 하는데 목표설정 방법중 하나로 SMART 방법을 소개한다.

- 1) 좋은 목표는 구체적(specific)이어야 한다.
- 2) 좋은 목표는 측정가능한(measurable) 것이어야 한다.
- 3) 좋은 목표는 성취가능한(achieable) 것이어야 한다.
- 4) 좋은 목표는 결과 중심(result-oriented)이 되어야 한다.
- 5) 좋은 목표는 시간적 구속력(time-bounded)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는 지도자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있어야 한다. 또 목표는 글로서 기록해 놓아야 한다. 기록해 놓은 목표는 동기의 출발점이 된다. 목표는 간략하면서도 장기와 단기 목표로 구분되어야 한다. 장기 목표는 지도자에게 지속적인 삶의 통찰력을 제시해주며, 단기 목표는 현재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5. 목회비전과 열정

지도자는 꿈과 목표의 사람이요 동시에 열정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열정을 불태우며 전력을 다하는 자가 지도자이다. 꿈에 대하여 열정과 집착하는 자는 미칠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 영적 지도자는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열정적이며 미쳐 버린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정의 사람이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영적 지도자에게 열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의하여 생겨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영적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다. 동시에 열정적인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집사를 뽑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여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 영적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하여서(딤후1:16) 성령의 사람, 열정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열정은 그의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살아있는 불꽃과 같은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한다. 미국 인디언을 위한 열정적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외쳤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불꽃이 될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땅 끝으로 보내소서. 지상의 위안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보내소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서 모든 제자들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셨던 것같이 영적지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타오르는 불이 되어야 한다.

## 6. 목회비전과 커뮤니케이션

지도자의 필수적인 자질은 의사소통의 개발이다. 일반적인 대화 뿐아니라 자신의 뜻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도자의 과제는 비전과 사명을 추종자들에게

전달하는 자이어야 한다. 비전의 효과적인 전파는, 비전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참된 방향의 제시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추종자들과 그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접촉하여야 한다. 한 조직체의 명확한 비전은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비전의 일부가 되도록 자기동기화하도록 영향을 준다. 비전을 공유한 비전공동체가 되면 그 조직체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영적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영적지도자가 가진 꿈을 함께 보고 함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되 반복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은 들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해야 한다. 성경은 중요한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도 반복적인 강조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5:24).

\* 참고도서목록

영적지도력을 위한 도서들 :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Eugene H. Peterson : Eerdmans),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Eugene H. Peterson :IVP), The Contemplative Pastor(Eugene H. Peterson : Eerdmans) The Purpose Driven church(Rick Warren : Zondervan), Rediscovering Church(Lynne & Bill Hybels : Zondervan)